산의 날 맞아…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개최

산의 가치와 소중함 알리는 부스 운영

산림청은 경기도 광주시 곤지 암 도자공원 일원에서 '사람을 살 리는 숲, 숲을 살리는 국민'이라 는 주제로 '제24회 산의 날' 기념 식 및 '제16회 대한민국 산림박람 회' 개막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 혔다. 이날 행사에는 소병훈, 안 태준 국회의원, 방세환 광주시장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 림헌장 낭독, 산의 날 유공자 12 명에 대한 정부포상 등이 이어졌 다. 특히 이 기간에 숲해설경연대 회, 산불피해 입업인 회복지원 런 닝대회 등도 진행됐다.

아울러 올해 16회를 맞는 대한 민국 산림박람회는 18일 개막식 을 시작으로 21일까지 계속되며, 90여 개의 다양한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 부스를 운영해 즐길 거 리도 제공한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건강한 산

림은 맑은 공기와 건강한 삶의 근 원이자, 미래 세대에 물려줄 소중 한 자원이다"라며, "이번 박람회를 산림의 가치를 알리고 환경과 조 화로운 삶을 꿈꿀 수 있도록 국민 과 함께 지속 가능한 미래를 그리 는 장으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 안진아기자 midal0210@naver.com



▲ 김인호 산림청장(오른쪽 일곱번째)이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 도자공원 일원에서 열린 제24회 산의 날 기념식에서 안태준(오른쪽 여섯번째), 소병훈(왼쪽에서 일곱번째) 국회의원, 방세환 광주시장(왼쪽에서 여덟번째) 등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영남지역 대형산불 피해지 신속한 복구방안 논의

복원·복구 추진단 3차 추진 상황 점검 회의 개최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정부대 전청사에서 지난 3월 발생한 영 남권(경북·경남·울산·대구) 대 형산불 피해지에 대한 체계적이 고 조속한 복구를 위해 산불피해 복원·복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고 17일 밝혔다. 이날 점검 회의에는 사방·시설복구반, 긴급벌채반, 자원활용반, 조림·생태복원반, 지역 활성화반 등 5개분야 실무반과 주요 피해지인 경북과 경남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와 복구방 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Δ산불피해지역의 조속 한 복구 지원 Δ활엽수 조림 확 대, 조림복원 성과 제고 등으로 산불피해에 강한 숲 조성 Δ산불 피해목 제거의 조속한 추진 Δ산 불피해 지역주민 의견에 기반한 복구계획수립 이행으로 국민주 권시대 구현 등 피해지역에 대한 완성도 높은 복구방안 실행을 집 중적으로 논의 했다.

이미라 산림청 차장은 "산불피해지역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현장 여건에 맞는 완성도 높은 복구를 실행하겠다"라며, "지역주민과 임업인들이 다시금 산림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영란기자 yungran528@hanmail.net

▲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앞두고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를 24시간 가동하며 산불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산림청, 가을철 중앙산불대책본부 앞당겨 가동

산불조심기간 10월 20일부터 조기 운영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가을 철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10월 20일부터 가을철 산 불조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 혔다. 기을철은 단풍 관람, 등산 객 증가 등에 따른 산행 인구가 많아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는 시기로, 최근 10년간 가을철 산 불조심기간(11.1.~12.15.) 동안 연평균 39.4건의 산불과 13.9ha 의 산림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올해는 APEC 정상회의 (10월 27일 ~ 11월 1일)가 있는 등 산불 대비 태세 확립 필요성 이 증가함에 따라 가을철 산불 조심기간을 당초 11월 1일에서 10월 20일로 앞당겨 운영한다.

산림청은 가을철 산불조심기 간 동안 241개 기관에 약 1,600 명의 신속대응반을 편성하는 한편, 야간산불 진화가 가능한 헬기를 2대에서 6대로 확충해 24시간 산불 대응 능력을 유지 할 계획이다. 이 기간에 중앙산 불방지대책본부는 24시간 가동 된다. 아울러, 불법소각으로 발 생하는 산불을 근절하기 위해 수확 이후 발생하는 영농부산 물에 대한 파쇄 지원, 산림 인접 지역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에 대한 재처리 용기 보급 등 산불 예방에도 힘쓸 계획이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가을철 은 입산객 증가와 수확 후 영농 부산물 소각 등에 따라 산불 발 생 위험이 커지는 시기이다"라 며, "산불위험에 철저히 대응해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 산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 김경수 기자 kyungsuk@nonguptimes.com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부정행위 집중단속 실시

수집 적정성 및 현장 일치 여부 판단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오는 11월까지 기후 재난 시대 화석 연료 대체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미이용 산 림바이오매스 발급 증명서에 따른 증명 수량과 실제 현장 반 출 수량 등을 확인해 수집 적정 성 및 현장과의 일치 여부를 판 단하는 한편 원목 혼입 등도 집 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지난해 7월 '목재 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 률'을 개정해 사법경찰권 및 벌 칙.과태료 부과 규정 등을 법제 화했으며, 부정행위에 대해서 는 법적 근거에 따라 엄중히 대 응한다는 입장이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란 국 내에서 생산되는 목재 중 산림 내에 남아 있거나 부가가치가 높지 않아 원목 등으로 이용할 수 없는 부산물로 기존에 활용 되지 못해 방치되어 산불위험 을 높이거나, 썩어서 대기 중으 로 탄소배출 되던 산물을 화석 연료를 대체하는 재생에너지로 활용하는 것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 르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를 연료로 사용 시에 대기로 배 출되는 탄소가 다시 식생으로 흡수되는 기간은 약 1~100년 으로 짧은 주기(cycle)를 갖지 만, 화석연료의 경우 연소할 때 10,000년을 초과하는 긴 주기 를 갖는다고 발표했다. 이는 화 석연료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 스로 대체해 사용하면 대기 중

는 탄소가 다시 식생으로 으로 배출된 탄소를 짧은 기간 다시 기간은 약 1~100년 내에 다시 흡수하기 때문에 탄짧은 주기(cycle)를 갖지 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다. 석연료의 경우 연소할 때 김인호 산림청장은 "지속 가 하나 사리바이오매스 저채 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지속 가능한 산림바이오매스 정책 실현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거짓.부정행위를 엄중히 처벌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목재펠릿 제조 시설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전국 산림교육전문가 한자리… 숲의 가치 전해!

산림청, '제19회 전국 숲해설 경연대회' 개최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제24회 산의 날을 맞아 17일부터 19일까 지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 도자공 원에서 제19회 '전국 숲해설 경연 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우수 숲해설 프로 그램 개발, 산림교육전문가간 정 보 교류와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 해 숲교육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 는 대회로 전국의 산림교육전문 가 200여 명과 시민들이 참여할 계획이다.

(사)한국숲해설가협회가 주 관하는 전국 숲해설 경연대회는 2007년부터 시작돼 올해 19회째 이며, 올해는 '숲을 더하다'라는 주제로 우리의 삶에 행복을 더하 는 숲의 긍정적인 가치를 널리 확 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경연대회에서는 숲해설 시연(유아·초등, 청소년·성인), 숲해설 프로그램 개발, 숲체험 교 구개발, 숲놀이 시연, 숲사진 공 모전 등 총 6개 분야에서 우수한 산림교육전문가를 선발해 시상 할 계획이다.

특히, 대회 기간 중 숲해설 교 구와 사진 전시, 산림교육프로그 램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부스도 운영할 계획이어서 대회를 찾은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거리도 제공한다.

송준호 산림청 산림복지국장 은 "이번 대회를 통해 산림교육 전문가의 역량이 향상되고, 산림 교육이 널리 확산되는 계기가 되 길 바란다"라며, "앞으로 산림교 육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 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선우주 기자 sunwo417@daum.net



▲전국숲해설경연대회(산림청제공)

EDHX12を713H, "メセキロ」等"01510121人には



23

경매·입찰 품목별로 정해진 시간에 공개적·경쟁적 거래를 통하여 수급사정을 반영한 가격에 낙찰





정가매매·수의매매

출하자와 구매자가 제시하는 다양한 조건(가격, 물량 등)을 기초로 도매시장법인(경매사)이 거래를 주관





전자거래(상·물 분리거래)

도매시장법인이 운영하는 '전자거래시스템'을 통해 거래하면 물건을 산지에서 구매처로 직송





예약거래

도매시장법인과 상의하여 미리 예약거래 (3일, 7일, 한달, 시즌별 등)



06774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7, 804호 (양재동, aT센터) Tel 3401.4001 Fax 3401.4002 e-mail kawa@kawa.or.kr 회원법인명단